

WEF Monthly Report

2025년 7월 4일, WEF 4차 산업혁명센터, 대한민국 경기도

C4IR Korea Global Intelligence Hub (koreago.net)

2025년 6월 글로벌 경제 및 산업 트렌드 리포트

* 본 자료는 세계경제포럼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영문 기사들 중 주요 기사를 선별하여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1. 뉴 챔피언 연례 총회(Annual Meeting of the New Champions)



2025 서머 다보스 1일차 - AI·무역·글로벌 경제에 쏠린 시선

세계경제포럼 뉴 챔피언 연례 총회(서머 다보스) 첫째 날에는 AI의 급속한 확산과 기후 위기 대응, 산업 재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날 공개된 '2025년 10대 유망 기술' 보고서는 녹색 질소 고정과 생성형 워터마킹 등 미래 산업 혁신을 이끌 주요 기술을

제시했습니다.

2025 서머 다보스 2일차 - 아시아 성장과 에너지의 미래 조명

서머 다보스 둘째 날에는 AI의 확산, 아시아 경제의 성장, 기후 자원 조달 불균형 등이 논의됐습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협력과 자립, 세네갈은 아프리카 투자 확대를 강조했으며, 전문가들은 AI가 일자리와 경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5 서머 다보스 3일차 - 중국 경제와 AI 전략

서머 다보스 마지막 날에는 중국의 경제 전망과 중국의 AI 전략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인재, 생태계, 응용 역량이 중국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업가 정신과 기술 혁신이 정책, 교육, 글로벌 협업과 맞물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유망 기술

세계경제포럼은 서머 다보스에서 2025년 10대 유망 기술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과학적 진보를 실제 산업과 사회에 적용한 혁신적 기술들을 다루고 있으며 3~5년 내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 기술 트렌드를 제시합니다.

2025년 혁신을 이끄는 기술 선도 기업들

세계경제포럼은 서머 다보스에서 '테크놀로지 파이어니어 커뮤니티'에 새롭게 선정된 100개 스타트업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AI, 양자컴퓨팅, 지속 가능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며 기후 대응과 식량 안보 같은 글로벌 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과 공급망의 미래

세계경제포럼과 컨설팅사 커니(Kearney)는 공급망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분열, 경제적 격차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개혁', '분열', '변동', '악화'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디지털화, 다변화, 적응성에 중심을 둔 유연한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 기업가 정신의 힘

세계경제포럼은 서머 다보스에서 기후 위기 대응과 책임 있는 기술 활용을 중심에 둔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이 협력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윤리적 혁신과 호혜적 파트너십으로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공유됐습니다.

'서머 다보스' 2025에서 본 기업가 정신의 5가지 변화

서머 다보스에서는 오늘날 기업가 정신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혁신이 촉진되고, ▲AI가 단순 도구를 넘어 공동 창작자로 자리잡으며, ▲사회적 가치와 목적 중심의 경영이 확산되고, ▲더 젊고 빠른 창업자 세대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자금 및 지원 생태계가 혁신을 가속하는 모습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창업가를 위한 지원 체계를 전 세계에 구축해야 하는 이유

자본, 인프라, 정책, 미디어의 집중이 여전히 일부 지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유망한 아이디어가 성장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혁신적 아이디어가 빛을 보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돕는 생태계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신흥 기업들이 글로벌 기회를 활용하는 법

중국의 민간기업은 GDP의 60%, 기술혁신의 70%, 도시 일자리의 80%를 담당합니다. 특히 최근 초기 창업 1세대에서 전문 경영 교육을 받은 2세대로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으며 혁신과 데이터 중심 전략에 기반한 생태계 확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2.0, 글로벌 제조업의 미래

중국은 현재 AI, 친환경, 자립을 골자로 하는 산업 혁신을 통해 '중국제조 2.0'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는 기술과 산업의 경계가 사라진 통합적 제조 모델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다음 경쟁 무대에서 성장을 이어갈 중국의 전략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MGI)는 향후 AI 기반 서비스, 전기차, 로봇틱스 등의 18개 미래 핵심 산업이 글로벌 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이 기회를 이어가려면 글로벌 협력 확대, 기초연구 투자, 인재 재교육에 주력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2. 기술(Technology)



가치 사슬을 다시 짜는 8대 기술과 '3C'...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의 등장

세계경제포럼의 '기술 융합 보고서'는 인공지능, 옴니 컴퓨팅, 생명공학, 공간지능, 로봇틱스, 첨단 소재, 차세대 에너지, 양자 기술 등 8대 핵심 기술이 결합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융합은 이미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기업들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분열된 세계, 프론티어 기술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안보,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국제적 거버넌스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글로벌 규범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 발전을 공공 이익과 안전에 부합하도록 조율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우주 기술의 확산과 함께 떠오르는 사이버 보안 과제

우주 기술이 통신, 내비게이션, 산업 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는 가운데

데, 이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과 보안 위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학계가 협력해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우주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우주 기술이 바꾸는 공급망과 이동 수단의 미래

우주 기술은 통신, 물류,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간 데이터와 연결성을 제공하며 기업들의 효율적 경영과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발전과 데이터 융합은 운송 및 모빌리티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술 혁신, 환경 보호 해법 될 수 있을까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코드 최적화,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전환, 오픈소스 협력이 혁신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 수익만이 아니라 환경적 책임도 고려하는 '책임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3. 경제(Economy)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임금 구조의 변화

AI가 생산성을 크게 높이고 있지만 임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중산층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임금 상승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술 역량 강화, 공정한 임금 정책 시행,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기 불황에 대비하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들이 전한 경고

세계 주요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긴장이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해 성장 둔화와 투자 위축, 고용 감소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전략적 민첩성을 높이고 무역, 통화, 정책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늘어나는 국방비, 커지는 국가 부채 리스크

주요 국가들이 방위 예산 확대를 위해 대규모 차입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러한 군비 확충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경제 전반에 새로운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중 무역 합의... 이달의 주요 글로벌 통상 이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관세가 아직 유지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2025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ASEAN은 무역 표준 통합과 지역 연결성 강화 등을 담은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며 2045년까지 세계 4위 경제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자연 환경 및 기후(Nature & Climate)



지금 주목해야 할 글로벌 해양 보호를 위한 이니셔티브 7선

UN 오션 디케이드, 1000 해양 스타트업 연합, 리바이브 아워 오션 이니셔티브 등 해양 보호

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양과 기후, 식량, 플라스틱 오염 같은 과제들을 하나로 묶어 과감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해양 공동체의 주도적 역할과 바다가 돌려주는 혜택

해양 생태계가 기후 변화, 오염, 과잉 개발로 훼손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과 정부가 지역 공동체 중심의 혁신과 공정한 이익 공유를 확대하고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속 가능한 해양 보전과 민간 부문의 부상

오염과 남획, 기후 변화로 해양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데이터 공유, 지속 가능 투자, 자연 친화적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적 블루 이코노미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계 환경의 날, 플라스틱 오염 저감 방안

플라스틱 생산은 매년 3억5000만 톤의 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생물을 활용한 분해, 생분해성 소재 개발, AI 기반 분류, 순환경제 확대 등 다양한 혁신적 해법과 함께 정부 정책 및 인프라 투자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미세플라스틱 위험과 대응 전략

미세플라스틱이 건강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미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규제와 혁신적 해법이 시급하다며 국제 조약과 기업 및 개인의 노력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원시림 보전이 생태계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유

원시림이 사라지면서 지구의 탄소 저장 능력과 생물다양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산림 보호와 재조림,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1조 그루의 나무를 보전, 복원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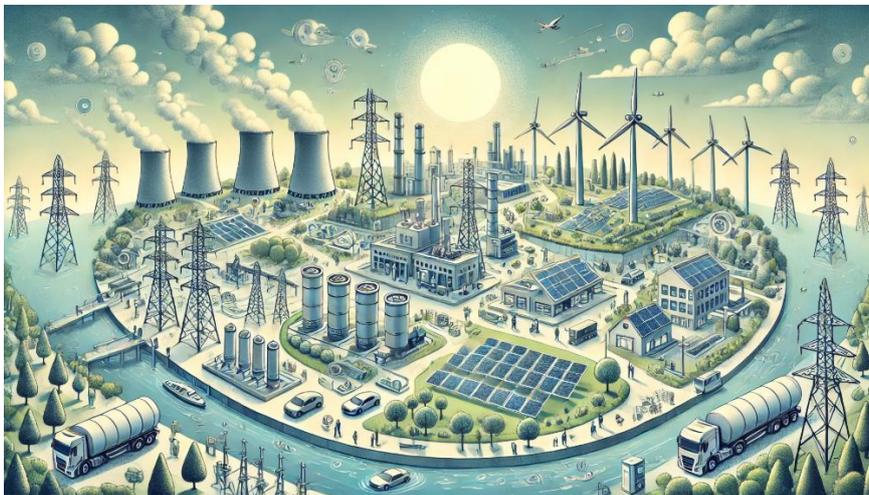
동물 행동에 나타난 기후 변화 신호

동물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며 몸집과 행동을 바꾸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관찰해 기후위기의 경고와 대응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데이터를 환경 보전에 활용하는 동시에, 인간도 이를 통해 환경 대응 전략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프리카 기후 대응 경험의 국제적 시사점

아프리카의 사례는 속도, 포용, 현지 주도권이 효과적인 기후 대응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재난 대비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면 기후 위협을 오히려 회복력과 적응 능력을 키우는 기회로 바꿀 수 있을 전망입니다.

5. 에너지(Energy)



2025 에너지 전환 지수 공개... 회복력 있는 에너지 시스템 위한 5대 전략

세계경제포럼은 2025 에너지 전환 지수를 공개하고 수요 급증, 투자 둔화, 전력망 유연성 부족이 에너지의 지속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전력망 및 저장 인프라 확충, 기술 상용화, 인재 육성, 개발도상국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래프로 보는 2025 에너지 전환 현황

세계경제포럼의 2025 에너지 전환 지수에 따르면, 118개국의 평균 점수가 1.1% 상승하며 회

복세를 보였으나 에너지 안보 개선은 더딘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이고 투자 친화적인 전략이 에너지 전환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의지만으로 부족하다”... 에너지 전환 위한 6인의 제언

에너지 전환이 점진적 진전을 이루고 있으나 금융 제약과 불확실성으로 탄력이 둔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력망 현대화, 저장 기술, 수요 관리, 국경 간 협력을 확대해 안정적이고 유연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6. 사회(Society)



2100년 인프라 미래 시나리오

기존 화석연료 기반 인프라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재활용, 분산형 설비와 탄소저감 기술 등 다양한 인프라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공투자과 민간자금 유치를 결합해 장기적 회복탄력성과 기후 대응 효과를 동시에 갖춘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바이오리전 설계의 개념과 환경적 의미

바이오리전 설계가 지역의 재료와 기후에 맞춘 건축 방식을 재해석해 탄소 저감과 자립성을 높이는 건축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식 공유와 지역별 정책, 다양한 저탄소 소재의 확산을 통해 이러한 설계 방식을 상업적, 사회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바이오산업 제조가 혁신을 주도할 3대 산업

바이오산업 제조가 식품, 화학물질, 핵심 광물 생산 등 세 분야에서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경제적, 전략적 자립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은 R&D, 바이오프로세싱 시설,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성별 격차 보고서 2025의 주요 내용

세계경제포럼의 2025년 글로벌 성별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및 정치 분야는 여전히 커다란 성별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 및 리더십 참여 확대, 돌봄경제 지원, 법과 제도의 실질적 이행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 회복력을 위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7. 건강과 식량(Health and Food)



기후 위기에 강한 보건 시스템, 국제표준이 해법으로 부상

기후 변화가 의료 시스템을 위협하며 사망 및 질병 증가, 인프라 붕괴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제표준(ISO)이 의료 서비스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